

유보통합시대에 영유아의 배움 읽기

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유보통합 시대를 맞아 그동안 다소 간과되어왔던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문제를 영유아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보다 명료하게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은 현장에 놀이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활성화된 놀이에 비해 영유아의 배움에 다소 관심이 부족했던 이유를 현장의 변화와 연구 동향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배움이 교육과정의 체계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고시문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하여 영유아의 배움을 탐구해 보았다. 특히 누리과정에 기반하여 영유아의 배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5개 영역의 내용을 가장 실제적이고 명료하게 나타내는 '배움 읽기'라는 대안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영유아의 배움 읽기를 실행하는 주체로서 영유아 교사가 배움에 대하여 보다 확장된 인식을 가지고 5개 영역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강화해 가는 행위 주체성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1. 영유아의 배움에 주목하며 유보통합 다시보기

유보통합은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영유아교육기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현안을 총칭하는 독특한 정치학적 용어이다. 유치원은 사실상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유아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육기관의 명칭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기관의 이원화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단순히 행·재정적 차이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교사의 자격

과 역할의 차이, 교육과 보육내용의 차이, 환경과 시설의 차이 등 수많은 차이를 만들어 와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둘러싼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시작된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나, 최근 현 정부에서는 영유아 교사양성체계, 통합모델과 시범학교 운영 등 여러 영역에서 구체적인 연구와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유보통합의 연구와 정책 개선의 노력들은 이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많은 난항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면 영유아 담당 행정직원들, 영유아교사 양성기관의 학생들, 교원교육자들, 유

지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부모 등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풀기 어려운 숙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현안 속에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영유아의 배움’에 관한 논의는 다소 부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유아의 배움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탐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학습자로서 영유아의 질 높은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에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영유아의 질 높은 배움의 문제를 다시 초점화하여 현장의 변화와 요구, 연구 동향의 측면에서 심도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영유아의 질 높은 놀이와 배움을 강조한 2019 개정 누리과정¹⁾의 실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유아의 배움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를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해설서와 현장지원 자료 등에서 먼저 찾아보고, 또한 최근에 여러 연구물에서도 영유아의 놀이를 풍성하게 논의하는 반면에 영유아의 배움을 탐구하는 노력이 부족함도 함께 비평해 보고자 하였다.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영유아의 배움은 놀이와 경험 등 여러 용어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어 의미의 폭이 넓고 때로는 추상적일 수 있어서(김재춘, 2012²⁾; 임부연, 박수연, 2017³⁾; 전가일, 2021⁴⁾; 최진아, 2024⁵⁾), 이를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하여 보다 객관

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보통합이 영유아의 질 높은 삶과 배움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영유아의 배움의 문제를 부차적이 아닌 중차대한 의제(critical matter)로 인식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영유아의 배움과 누리과정 5개 영역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 교육과정이 온전하게 실행되는 방향을 구체적 방법론으로 탐구해 보고자 한다.

2. 영유아 배움에 대한 인식론의 한계와 확장

가. 놀이에서 배움으로 인식 확장하기

최근에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교육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 가면서 0~2세 표준보육과정의 부분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현재 여러 각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에서 영유아의 배움과 가장 근접해 있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0~2세 보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 단위 각종 연수 자료에서 0~2세 어린 학습자의 배움의 중요성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영유아의 놀이가 안착되고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영유아 배움은 오히려 간과되어 왔음에 비추어 볼 때 늦었지만 고무적인 일이다.

누리과정은 2015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르기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1) 이후는 개정 누리과정으로 기술하였다.
 2) 김재춘(2012). 들뢰즈의 '기호와 의 마주침을 통한 배움'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원리연구, 17(1), 65-87.
 3) 임부연, 박수연(2017). 들뢰즈의 배움 기호를 통한 유아교사의 경험 탐구. 교사교육연구, 54(4), 500-518.
 4) 전가일(2021). 반상위에 펼쳐진 포스트휴먼 페다고지 탐색. 교육사상연구, 35(4), 245-287.
 5) 최진아(2020). 질 들뢰즈의 교육철학: '배움' 개념에 담긴 대안적 학습의 가능성 모색. 서강인문논총, 59, 383-409.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교육 과정이며, 이는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유보통합의 작은 성과 중의 하나이다. 특히 놀이중심을 주창한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현장은 ‘놀이’가 활성화되고 학문적으로도 영유아의 놀이와 관련된 연구물들이 급증하는 등 어느 정도 놀이 중심 영유아 교육과정⁶⁾에 대한 실행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놀이중심 누리과정이 현장에 미친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탐구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무엇보다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하여 개발 보급한 해설서, 놀이 이해, 놀이 실행 자료에서도 영유아의 배움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는 그동안 교사용 지도서 등을 통해 활동을 주도해 온 유아교사 역할을 유아를 ‘지원하는 자’로 제시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역할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놀이 이해’와 ‘놀이 실행’ 등 후속 현장 지원자료는 놀이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놀이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였지만,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교사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였다는 비평도 이어졌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은 유아가 놀이를 잘하고 놀이에서 많은 역량을 보여준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고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가진다(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 2022⁷⁾; 최은영, 2022⁸⁾). 즉 유아 중심의 놀이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역할 혼란과 교육과정 실행력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교사들이 가지는 누리과정 실행의 어려움이 영유아의 놀이 그 자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사의 놀이지원에 대한 부담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즉, 누리과정 실행의 어려움은 놀이 자체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를 확장하고 지원하는 데서 발생하는 교사 역할의 어려움은 아닌지,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하게 교사의 놀이지원의 어려움은 오히려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어려움’이 아닌지를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교사들에게 놀이를 잘하고 있는지를 묻기보다는 오히려 영유아의 배움을 잘 지원해 주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교사의 역할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에서 교사 역할은 끝없는 놀이 욕망을 가진 영유아의 놀이를 무한으로 지원하고 확장하는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아야 하고, 오히려 아주 작은 놀이에서조차 영유아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힘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실행은 놀이의 활성화에 기반하여 영유아의 배움을 강조하는 교육내용의 실행력과 연결되어 있으며,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온전한 실행을 위하여 이제 ‘놀이만 고민’하는 것이 아닌, 영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을 고민’하는 것으로 이행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영유아 배움에 대한 새로운 탐구 시작하기

개정 누리과정 이후 학계에서도 놀이에 대한

6) 이는 영유아 표준보육과정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맥상 필요에 유아 또는 영유아 교육과정으로 기술하였다.

7) 김은영, 강은진,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202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8) 최은영(2022).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과정 문서, 실행수준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 16(2), 213-242.

학술 탐구가 증가하였고 영유아의 놀이 역량, 놀이 기록물의 다양성, 놀이의 복잡함 등을 소재로 풍성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류승희, 이정옥, 2023⁹⁾; 박종명, 이연승, 2020¹⁰⁾; 손연주, 2022¹¹⁾; 이진희, 허정민, 장은정, 2020¹²⁾; 임승렬, 전방실, 2020¹³⁾; 전가일, 2021¹⁴⁾; 정혜영, 김미진, 김병만, 2023¹⁵⁾; 최일선, 권정윤, 임수진, 2019¹⁶⁾). 그러나 이러한 연구물들은 놀이 자체가 가지는 힘, 영유아의 놀이 역량, 놀이 사례의 풍부함과 다양성 그리고 최근에는 신유물론 철학까지 수용한 놀이자료의 물질성에 대한 탐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심화 확장되어 왔지만, 영유아의 배움을 초점화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노력에는 여전히 소극적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의 어려움과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 논문들도 놀이중심 누리과정 실행의 문제를 교사의 역할에서 오는 혼란으로 지적하며 여전히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인식론으로 확장해 가는 노력에는 미진한 경향이 있다. 물론 영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을 초점화하여 다루는 학술 논문도 증가하고 있다(강하은, 2023¹⁷⁾; 김수연, 정가운, 2020¹⁸⁾; 동풀잎, 2024¹⁹⁾; 손연주, 2022²⁰⁾; 이진희, 허정민, 장

은정, 2019²¹⁾; 임부연 2024²²⁾; 최혜윤, 2024²³⁾). 이러한 연구 동향들은 놀이에서 영유아들이 보여주는 놀이 역량, 공간 활용의 유능성, 놀이자료의 변용과 창조성, 배움의 다양성 등에 주목하여 놀이와 배움을 심화시키는 학문적 탐구로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의 명증성을 제시하는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탐구도 요청받고 있다. 놀이중심 누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복잡한 현상을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탐구하고 때로는 ‘놀이 지원에 부담을 가지는 교사’에서 ‘영유아의 배움에 주목하는 교사’로 나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질문들은 현장의 교사들에게 놀이 지원의 어려움에만 집중하기보다 오히려 놀이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더 주목하는 교사의 역할 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비평은 교사의 역할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중심 누리과정의 실행에 대한 비평도 포함되어야 한다. 놀이를 중심으로 제시한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교육과정으로 바라볼 때 ‘놀이를 지원한다’의 명제는 이제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는 명제로 방향의 전

-
- 9) 류승희, 이정옥(2023).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위한 유아교사의 시도와 변화: 2019 개정 누리과정 1, 2차년도 실행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연구, 43(1), 315-345.
 - 10) 박종명, 이연승(2020).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실행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한국유아교육연구 22(4), 26-45.
 - 11) 손연주(2022). 유아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육내용(PCK)과 교육학지식(PCK)간의 운동성탐구: 신물질주의에 기반하여 새롭게 바라보기. 교육비평, 5(51), 180-222.
 - 12) 이진희, 허정민, 장은정(2019). 놀이~배움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린이의 배움에의 성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43-567.
 - 13) 임승렬, 전방실(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실제에서 나타난 유아 및 교사의 변화 과정.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4), 21-47.
 - 14) 전가일(2021). 반상위에 펼쳐진 포스트휴먼 페다고지 탐색. 교육사상연구, 35(4), 245-287.
 - 15) 정혜영, 김미진, 김병만(2023). 유아교육과정평가 방향성 탐색: 함께-따로 열리며 생성하기. 열린유아교육연구, 28(4), 1-28.
 - 16) 최일선, 권정윤, 임수진(2019).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교육내용 진술방식 분석: 사회관계영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9(4), 241-258.
 - 17) 강하은(2023). 유아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탐구: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8) 김수연, 정가운(2020). 만 4 세반 미술놀이에서 유아의 배움에 관한 현상학적 의미 탐색. 육아지원연구, 15(3), 75-103.
 - 19) 동풀잎(2022).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유아들의 놀이와 학습에 대한 탐구: 디지털 놀이. 유아교육연구, 42(6), 357-383.
 - 20) 손연주(2022). 유아교육과정 실행에서 교육내용(PCK)과 교육학지식(PCK)간의 운동성탐구: 신물질주의에 기반하여 새롭게 바라보기. 교육비평, 5(51), 180-222.
 - 21) 이진희, 허정민, 장은정(2019). 놀이~배움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린이의 배움에의 성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43-567.
 - 22) 임부연(2024). 유아교육과정 교육내용 탐구: 5개 영역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과정연구, 14(3), 63-84.
 - 23) 최혜윤(2024). 유아 배움의 현상 탐구: 사건, 상황, 관계 속에서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1), 383-397.

환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놀이는 여전히 영유아의 통합적 배움을 묶어주는 중심축이며, 이러한 관점은 현재 학술 탐구에서 매우 풍성해진 '놀이의 인식론'을 이제 영유아의 '배움 인식론'으로 이행하며 현장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구축해 가는 탐구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3. 누리과정 고시문에서 영유아 배움 이해하기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배움에 대한 가장 본질적이며 객관적 접근은 교육과정 고시문에 기반하여 영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연계해 가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고시문은 법적 문서이고 의견이 다른 많은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도출한 배움에 대한 기준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영유아의 배움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 방법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 고시문에서 교사가 생각하는 누리과정 실행 문항 살펴보기

1) 운영(담당)자

최근 개정 누리과정 실행 이후 발간된 각종 자료와 보고서에서 교사들이 지각하는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충분한 놀이시간'과 가장 관련이 깊다. 교사들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시간을 적어도 하루 2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지원하며 누리과정 운영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들은 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유아의 놀이를 관찰 기록하거나 놀이 확장을 위한 다양한 놀이 자료와 공간구성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잘 실행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토록 충분한 놀이시간의 운영, 교육계획안이 형식과 내용의 변화, 놀이 기록의 다원화, 풍성해진 놀이자료와 변화하는 놀이 공간 등은 유아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실행력이란 고시문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교사들이 지각하는 누리과정 실행력을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에 기반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내용을 누리과정 고시문의 문항에서 찾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사들이 생각하는 놀이 중심 누리과정의 실행과 관련된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의 문항
 - 편성운영 '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 편성운영 '라':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 교수학습 '가':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교수학습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교수학습 '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이토록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에서 교사들이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실행과 관련되어 가장 잘 실행하고 있다고 믿는 내용은 놀이시간, 놀이에 대한 계획과 기록, 실내외 놀이 공간, 놀이자료 등이며 이는 모두 고시문 총론에서 편성·운영과 교수학습에 해당하는 문항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육과정 실행이란 고시문 전체, 즉 총론과 각론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누리과정 실행력 고시문의

편성·운영과 교수학습 등의 총론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편성·운영과 교수학습이란 학습자의 배움을 실천해 가기 위한 교사의 교수법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지 영유아의 배움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정 고시문의 구성에서 학습자의 배움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은 각론의 교육내용, 즉 5개 영역의 내용이며, 실제 교육과정 실행이란 교육내용으로서 5개 영역이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재 누리과정 실행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을 짚어 보면 영유아의 배움과 관련된 5개 영역의 실행에 대한 인식력이 미진함을 알 수 있다. 영유아 교사가 가지는 놀이중심 누리과정 실행의 어려움이 교수학습 방법론에 치우친 인식력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고시문에서 영유아의 배움과 관련된 주요 문항 살펴보기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기반으로 누리과정을 실행해 간다는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시문 전체 총론과 각론 모두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²⁴⁾.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은 총론과 각론, 즉 5개 영역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총론에서는 영유아 배움과 관련된 기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문항이 있으며 이러한 문항은 5개 영역의 실행 기준을 제시하여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유아의 배움과 5개 영역의 실행과 관련된 문항을 고시문에서 소상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총론에서 배움과 관련된 고시문의 주요 문항
 - 구성의 중점 '라': 유아²⁵⁾가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교수학습 '나':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교수학습 '마': 5개 영역의 내용이 유아의 경험과 통합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 각론에서 배움과 관련된 주요 문항
 - 신체운동·건강 영역 12개의 내용
 - 의사소통 영역 12개의 내용
 - 사회관계 영역 12개의 내용
 - 예술경험 영역 10개의 내용
 - 자연탐구 영역 13개의 내용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개정 누리과정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항은 총론의 3개 문항과 5개 영역의 59개 교육내용이다. 총론의 3개의 문항은 5개 영역의 내용을 영유아의 배움으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항들이다.

먼저, 고시문 총론에서 영유아의 배움과 관련된 3개 문항을 이해하려면, 이 3개의 문항이 모두 각론의 5개 영역과 가장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중 총론에서 영유아의 배움과 5개 영역을 설명하는 가장 두드러지는 핵심 문항은 총론 구성의 중점 '라'의 '유아가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의 문항이다. 이는 5개 영역의 내용은 '영유아가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라는 의미로서 바로 5개 영역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항이기 때문이다. 즉, 누리과정 5개 영역은 유아가 경험해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는 의미이다.

24) 고시문 이외에 해설서도 고시문의 법적 문항을 해설한 자료집이기 때문에 해설서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며, 또한 평가를 해설한 부분에서도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해설이 많이 등장하므로 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25) 여기서는 편의상 누리과정 고시문에 명시된 문구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므로 '유아'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실제 표준보육과정에서는 0-2세 영아도 포함하여 명시한 '영유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누리과정 실행에 대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하는 고시문의 문항과 실제 고시문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실행하기 위하여 가장 주목해야 하는 핵심문항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즉, 교사들은 영유아의 배움을 교수학습으로 이해하지만, 고시문의 구성에서 볼 때 영유아의 배움은 5개 영역과 경험으로 구성한다는 문항이 가장 핵심적 문항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구성과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각론의 교육내용이며, 이 교육내용이 학습자의 경험과 배움의 질을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누리과정 실행과 관련하여 영유아 교사가 가장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고시문의 내용은 영유아의 '경험'과 '5개 영역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즉, 구성의 중점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의 문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5개 영역의 내용을 구성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누리과정 실행력을 말하는 문항이기도 하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두 번째 문항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라는 문항과 연결하여 볼 필요도 있다. 교사들은 대부분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고시문의 문항에 충실하다고 자기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한다는 것이지, 놀이에서 영유아가 배우는 내용에 충실히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그냥 놀이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유아가 놀이를 통해 가장 잘 배우기 때문에 놀이를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도록 한다'의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놀이보다는 '배움'이어야 한다. 즉, 누리과정 실행이란 5개 영역의 내용을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항들은 다시 교수학습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이 유아의 경험과 통합적으로 연계하도록 한다'라는 문항과도 연관된다. 이 문항에서 주요한 용어는 영유아의 경험과 5개 영역의 내용 그리고 '통합'이며, 이는 5개 영역의 내용은 영유아가 반드시 통합적으로 경험한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은 우리나라 유아교육과정 역사에서 다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차별되는 가장 고유한 정신이기도 하다. 영유아 교육과정은 교과가 아닌 경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을 따로 배우지 않고 통합적으로 배우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주요 문항에서 영유아의 배움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 '영유아는 놀이를 통한 경험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배운다'가 된다.

이상과 같이 고시문을 기반으로 유아의 배움과 5개 영역의 실행을 정리해 보면 현장에서 교사의 인식력은 교수학습 방법론에서 영유아의 배움과 관련이 깊은 '경험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으로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누리과정 핵심 용어인 '영유아의 경험'과 '놀이를 통한 배움'도 5개 영역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문해력의 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영유아의 배움을 구현해 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영유아 교사들의 배움의 인식력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학술 연구도 영유아의 배움을 좀 더 고시문의 배움 관련 핵심문항과 5개 영역의 배움의 문제를 포함하여 확장된 탐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에서 영유아의 배움을 구체화하고 교사의 영유아의 배움에 대한 인식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영유아의 배움, 그리고 그 배움과 가장 관련이 깊은 5개 영역을 어떻게 실행해 갈 수 있


는지에 대한 실제적 방법론, 즉 현장에서 교사가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말한다. 지금까지 영유아의 놀이를 활성화하고 놀이의 기록을 풍성하게 하는 실행력이 강화되어 왔다면 이제 이를 영유아의 배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5개 영역을 실행해 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영유아의 교육과정에서 영유아의 배움 읽기

가. 보육과정 고시문, 5개 영역에 기반하여 영아의 배움 읽기

영유아의 배움을 강조하는 영유아 교육과정의 실행은 5개 영역을 중심으로 보다 견고하고

간략한 놀이 기록 예시



지원이와 은제는 바깥놀이에서 모래에 물을 섞으며 쌓기와 파기를 즐기면서 큰 웅덩이를 만들고 즐거워한다. 지원이는 모래 웅덩이가 제법 커지자 용감하게 멀리 뛰기에 성공하고, 은제도 웅덩이에 빠지지만 은 힘을 다해 웅덩이를 빠져나온다. 은제는 지원이가 큰 웅덩이를 건너뛰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계속 뛰어넘기를 시도한다.

〈개정 누리과정 신체운동·건강 영역 통합적 놀이사례 중에서〉

놀이기록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을 연결하는 다양한 예시

1) 놀이에서 5개 영역을 찾아 표시하기

지원이와 은제는 바깥놀이에서 모래에 물을 섞으며 쌓기와 파기를 계속하여 큰 웅덩이를 만들고 즐거워한다...중략...

신체운동·건강	○
의사소통	
사회관계	○
예술경험	
자연탐구	○

2) 놀이기록 과 5개 영역 내용을 별도로 적기

〈놀이〉지원이와 은제는 바깥놀이에서 모래에 물을 섞으며 쌓기와 파기를 계속하여 큰 웅덩이를 만들고 즐거워 한다...중략...

- 신체운동·건강) 신체활동 즐기기)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사회관계) 더불어 생활하기)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 자연탐구)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3) 놀이기록에서 내용을 괄호 안에 별도로 적어 연결하기

지원이와 은제는 바깥놀이에서 모래에 물을 섞으며 쌓기와 파기를 계속하여 큰 웅덩이를 만들고 즐거워한다(자연탐구-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탐색한다). 지원이는 모래 웅덩이가 제법 커지자 용감하게 멀리 뛰기에 성공하고 은제는 웅덩이에 빠지지만 은 힘을 다해 빠져 나오고 있다(신체운동·건강-신체 움직임 조절한다). 지원이는 은제는 모래 웅덩이를 파는 것을 즐기고 큰 웅덩이를 서로 번갈아 건너뛰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계속 멀리 뛰기를 시도한다(사회관계)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4) 유아의 경험과 5개 영역의 내용을 함께 적어 배움으로 읽기

지원이와 은제가 모래에 물을 섞으며 쌓기와 파기를 시도하며 젖은 모래라는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하고(자연탐구), 적당히 젖은 모래를 파면 큰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주변 세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워 한다(자연탐구). 모래 웅덩이가 커지자 지원이는 최대한 다리를 벌려 높이 뛰어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여(신체운동·건강)웅덩이 넘기에 성공하고, 웅덩이에 빠진 은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하며 실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즐기고 있다(신체운동·건강). 또한 지원이와 은제는 서로 함께 웅덩이를 만들며 친구와 서로 도와가며 사이좋게 지내는 경험도 하고(사회관계) 서로 멀리 뛰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다루지 않고 놀이하며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

[그림 1] 유아의 놀이와 5개 영역을 연결하여 배움을 읽는 방식의 예26)

26) 5개 영역과 놀이를 연결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특성을 가진 방식을 예시로 제안하였음.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유아 교육과정은 오랜 전통 속에서 항상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배움과 연관시키고자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해 왔다. 때로는 활동 계획안에 5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체크하거나, 교수계획안에 5개 영역의 내용을 직접 목표로 기술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 놀이를 기록하고 5개 영역을 연계하는 방식이 교사의 자율적 운영으로 제안되면서 더 다양화되고 있다. 교사들은 놀이와 실행된 교육과정을 문서로 남길 때 5개 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고 놀이만 기록하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모든 방식은 모두 영유아의 배움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유아의 놀이에서 경험과 5개 영역의 배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여전히 5개 영역의 실행력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묶어서 교실 수준에서 실행해 가는 구체적 방법론이 필요하며 이를 '배움 읽기'라는 용어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유아의 경험은 일상생활과 놀이, 활동 등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여기서 배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읽고,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움 읽기로 이해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험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예를 들어 유아가 모래놀이에서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이를 뛰어넘으며 즐기는 바깥놀이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모습만을 기록하는 것은 놀이의 기록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놀이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것을 배움으로 연결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5개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든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몇 가지

예시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의 놀이에서 5개 영역을 연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연결 방식 모두가 유아의 배움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1)은 유아의 모래놀이에서 두드러진 5개 영역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를 해 주는 것으로 놀이와 5개 영역을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활동 중심 유아교육과정에서 활동을 5개 영역과 연결할 때 가장 용이하게 활용해 온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게 유아의 놀이에서 어떻게 배움이 일어났는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뿐더러 유아가 경험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5개 영역의 실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2)의 방식은 놀이에서 유아가 경험한 내용을 5개 영역에서 찾아서 별도로 적는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영역을 체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5개 영역에서 해당하는 내용이 유아의 경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 유아 중심의 5개 영역의 실행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3)의 방식은 유아의 놀이에서 경험을 먼저 적고 배움에 해당하는 내용을 괄호 안에 '(영역-내용)'으로 적어주는 것으로 처음 배움 읽기를 시도하는 교사에게 가장 수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5개 영역의 내용이 유아의 경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별도의 괄호 안에 기술되고 있어서, 유아의 경험과 내용의 관계성을 여전히 유추하여야 하고, 또한 5개 영역의 내용이 어떻게 배움으로 나타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5개 영역을 다루는 데 능숙해진 교사는 4)와 같이 5개 영역의 내용을 유아의 경험과 함께 엮어서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놀이에서 유아의 배움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방식을 연습하

는 것이 필요하다. 3)과 4)의 차이로 보면, 3)에서는 5개 영역의 내용을 가져왔지만 유아의 경험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이 여전히 괄호 안에 별도 표기되어 있고 경험에서 배움으로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4)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유아의 경험과 함께 문장 안에 녹여 기술하고 괄호 안에는 영역만 적어, '유아가 경험하는 내용' 배움으로 분명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괄호 안에 영역을 적는 방식도 교사가 내용을 적는 방식에 능숙해지면 차차 괄호를 활용하는 방식은 지양할 필요도 있다. 즉, 5개 영역의 내용을 영아의 경험과 잘 녹여 자연스러운 배움으로 적는 방식은 5개 영역의 내용이 실행되는 과정을 증거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적절하다.

영유아의 경험에서 배움은 무한으로 열려질 수 있지만 이토록 국가가 제시한 교육내용으로 5개 영역을 놀이 기록 안에 직접 기술해 줌으로써 유아의 배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갈 필요가 있다. 교사는 유아의 경험을 배움으로 읽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5개 영역의 실행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영아의 경험과 내용을 서로 분리하여 적어 배움을 추론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경험과 내용을 함께 적어 배움으로 명확히 보이도록 기록하는 방식을 훈련해 갈 필요가 있다. 교사는 유아의 경험과 내용을 한 문장 안에 함께 적어가는 연습을 통해 유아의 경험하는 내용이 곧 배움이 되는 것을 바로 확인해 가면 5개 영역을 능숙하게 다루는 교육과정 전문가로 성장해 갈 수 있다.

나. 배움 읽기: 경험에서 배움을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론

배움 읽기는 영아의 열린 배움을 좀 더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연결 지어 구체화하는데 가장 실제적 방식 중의 하나이다. 배움 읽기는 영유아의 놀이에서 배움을 확연히 볼 수 있도록 가시화하는 방법이고 교사가 영유아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배움 읽기는 마치 초원의 풀숲같이 넓은 영유아의 경험을 국가가 제시한 교육내용으로 정선 하여 다소 질서 있게 나타나게 하는 데 유용하다.

여기서 또한 언급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배움 읽기가 영유아의 경험에 기반하는 배움을 읽는다는 점에서 경험의 주관성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객관적 평가의 방식을 활용한다. 즉 학습자의 배움을 읽기보다 객관적 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배움을 미리 정하여 학습의 목표와 내용으로 제시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배우도록 한 후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험이나 유사한 테스트를 거친다. 시험과 같은 평가 방식은 학습자의 주관적 경험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즉 학습자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배제하였을 때만 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인간의 경험은 그냥 지식을 넣고 빼며 알아가는 단순한 작용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삶의 방식을 거친다. 따라서 경험이 만들어 내는 복잡한 배움을 제거하고 가르친 내용만을 배움으로 보는 학교 교육과정은 많은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미 전 세계는 이렇게 학습자의 경험을 배제하는 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습자의 '경험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보은, 2023²⁷⁾; 조상연, 2023²⁸⁾; 최진아, 2020²⁹⁾). 역량중심 교육과정

27) 김보은(2023). 교실교육과정 실행 중 교사와 학생이 선정하는 교육내용 원천탐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과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은 바로 학습자의 경험 수용에 관한 교육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한 배움에 주목하고 학습자가 드러내 보이는 행위성을 배움의 증거로 보기도 한다. 역량중심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한 배움의 출현에 더 주목하는 새로운 읽기 방식을 수용한다. 예를 들면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1-2학년 균의 교육내용은 역량을 대폭 수용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배움의 내용을 대폭 행위성으로 연결하여 교사의 적극적 해석과 읽기 방식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실행해 가는 설계이다. 이러한 열린 배움에서 역량은 학습자가 경험을 통한 배움을 행위성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수용한 행위중심 교수학습방법론이다. 이는 놀이중심 누리과정에서 경험을 교육내용과 배움으로 보는 방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놀이는 영유아가 경험하며 배우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배움 읽기는 영유아의 놀이 경험에서 나타나는 행위성을 배움으로 읽어가는 것이며, 영유아의 '경험'은 '내용'이 더해져서 '배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5. 배움 읽기와 교사의 교육과정 행위 주체성

'배움 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좀 더 교사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의 배움과 관련되어 배움의 이해 등의 용어를 더 많이 쓰지만 '배움

이해'는 학습자가 이미 배운 내용을 어른이 이해하는 사변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배움 읽기는 교사가 단순히 생각으로 영유아의 배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배움을 적극적으로 읽어 주는 행위성을 포함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유아의 배움은 놀이 경험에서 생성되는데 이는 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비예측적이다. 이렇게 늘 변화하는 영유아의 배움을 교육과정 5개 영역으로 연결하여 읽는 방식은 매번 새로울 수밖에 없다. 영유아 교육과정은 고정된 지식을 영유아가 그대로 학습한다는 재현 학습을 넘어서서 영유아의 경험하는 내용을 배움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식도 항상 새롭게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배움을 읽어간다는 것은 고정되지 않은 영유아의 경험 속에서 배움을 찾아내고, 이를 5개 영역과 연결하여 읽어가는 적극적인 '행위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변적 이해와는 차원이 다르다.

예를 들면 무엇을 '읽는다'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자를 읽어가는 문해의 개념도 있지만 영유아가 경험한 내용을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하여 배움으로 읽어가기 위하여 특정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교사는 놀이에서 배움을 읽기 위하여 영유아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사진을 찍거나 메모 등을 하고 영유아의 대화를 그대로 적어 읽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적어가는 기록 행위 등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는 고민하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등 복잡한 마음 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행위적'인 것이지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교사는 단순하게 영유아가 쓴 답안지를 읽거나 채점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유아의 경

28) 조상연(2023). 지금-여기-우리 삶을 위한 2022 개정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연구, 17(4), 135-166.

29) 최진아(2020). 질 들뢰즈의 교육철학: '배움'개념에 담긴 대안적 학습의 가능성 모색. 서강인문논총, 59, 383-409.

힘 속에 가려져 있지만 이를 드러내어 밝혀 주는 적극적 '읽기 행위'를 한다. 곧 읽기는 두뇌나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행위성이 동반되는 실천적 방법론이기도 하다.

또한 배움을 읽는다는 것은 최소한 국가가 제시한 배움의 기준으로서 5개 영역과 연계하여 배움을 찾아 읽는다는 점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폭넓은 문해력을 요청한다. 배움 읽기에서 교사는 5개 영역의 내용을 매우 능숙하게 다루는 전문성이 요구된다. 교사는 누리과정 5개 영역, 59개 내용(영아는 0~1세 40개, 2세 42개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언제든지 영유아의 경험과 연결되어 배움으로 읽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과정 실행을 교수방법론, 즉 환경구성이나 상호작용 등으로만 인식해 오던 관행에서 '교육내용'인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실행의 전통을 만들어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교육과정에서 모든 교사는 교육내용에 가장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즉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영유아 교사란 5개 영역에 대하여 매우 숙련된 자를 말하는 것이며, 5개 영역을 기반으로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것이 온전한 실행임을 이해하는 전문성을 말한다. 무엇보다 5개 영역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영유아가 경험하는 모습에서 배움을 읽어주기 위하여 5개 영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초등학교 교사가 준비하는 모든 교수방법이 교육내용으로서 국어, 수학, 사회 등의 교육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배움 읽기에서 5개 영역은 단순히 활용하거나 꺼내 쓰는 기계적 개념이 아니라 영유아의 경험에서 보이는 의미를 배움으로 전환해 주기 위해 교사가 가장 능숙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다. 교사는 교육내용인 5개 영역을 능숙하게 다루는 행위성(즉 읽고, 찾고, 가져오고, 기록하고, 다시 보고 이해하는 적극적 행위)을 바탕으로 영유아의 경험에서 배움을 읽어가며 영유아를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며 영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새로운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배움 읽기에서 교사는 5개 영역의 내용을 총론의 기준에 맞추어 유능하게 실행해 가는 행위 주체가 된다.

배움 읽기 - 영유아에 대한 깊은 이해 - 배움 지원으로 이어지는 교사의 행위성은 체계적 순서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무엇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읽기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를 포함한다. 인간은 문학작품을 읽거나 그림을 읽을 때에도³⁰⁾ 절대 그냥 읽지 않으며 읽기의 과정 속으로 들어가 무언가 움직이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한다. 읽기의 복잡한 행위성은 무엇보다 읽는 자, 즉, 읽어가는 자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와 생성'을 동반한다. 즉 수동적 읽기가 아닌 마음을 일으키며 적극적 변화와 감정의 움직임을 발생시킨다.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배움 읽기는 왜 중요할까? 교사는 영유아의 배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읽게 된다. 그것은 영유아의 배움을 단순히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를 더 깊게 알아가는 과정이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움을 지원하기 위한 고민으로 안내되어진다. 배움 읽기를 통하여 교사는 때로는 자신을 뒤돌아보고, 영유아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으며 교사 스스로도 어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작용을 통해 학습자로서 영유아와 교사는 서로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다.

30) 그림을 감상하는 것을 때로는 그림을 읽는다 라는 표현을 쓰며 이는 시각적 문해력(visual literacy)의 개념과도 관련이 된다.